세종충청뉴스

충남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2026년 사업장 322개 임금체불 전수조사 실시

김형철 기자 입력 2026.02.28 22:57 | 댓글 0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

[보령=세종충청뉴스]김형철 기자=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내 사업장 32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을 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현장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현장감독에서는 임금체불을 신고한 노동자뿐 아니라 아직 신고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 여부까지 전수 확인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사업주가 시정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인지해 사법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높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와 근로자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체불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해 사업장 내 숨어 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 해결하는 노동행정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형철 기자

10073000@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세종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대전투데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꼼짝 마'...322개 사업장 현장감독 대폭 확대

송병배 | 승인 2026.03.02 11:50

2026년 임금체불 전수조사 감독 실시...체불 노동자 권리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을 확정하고 올해 11월까지 총 3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독 활동을 펼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임금체불 문제 해소에 방점을 찍어 전체 감독 대상 중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최근 1년 사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노동자 3명 이상이 체불 신고를 한 사업장 모두가 현장 감독 대상에 포함돼 일제 점검이 이루어진다.

현장 감독 과정에서는 신고 노동자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하지 않은 체불 피해자까지 전수 확인해 문제를 바로잡도록 조치하며, 사업주가 시정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을 추진한다.

한편,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가 임금체불금을 갚으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 보령지청은 사업주 융자 지원과 대지급금 제도 활용 방안을 적극 안내해 체불 해소를 돕기로 했다.

이점석 지청장은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미공개 체불 사례를 찾아내고 해결해 노동 행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금체불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병배 song4243@hanmail.net

저작권자 © 대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전수조사 돌입

-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 발표

이재인 기자

입력 2026.02.27 16:49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7일, 올해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11월까지 총 32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임금체불액 감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전체 감독 대상 중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집중 배치했다.

특히 최근 1년 내 두 차례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과 신고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현장 감독 대상에 포함된다.

감독 과정에서는 신고된 체불뿐 아니라 아직 드러나지 않은 체불까지 확인해 시정 조치를 내리고,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사법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반면 경영상 어려움 속에서도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는 융자지원 제도와 대지급금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용을 돕는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통해 숨어 있는 체불까지 모두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체크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인 기자

다른기사 보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현장감독 대폭 확대

양승용 기자 | 승인 2026.02.27 23:03

>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 최우선 목표 '임금체불액 감축'
> 임금체불액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신고 사업장 현장 감독
> 임금체불 청산 의지 높은 경우 융자지원 및 대지급금 제도 안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를 현장 감독한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을 현장 감독한다.

현장 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한다.

한편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여 사업장 내에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어 해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타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승용 기자

노동부 보령지청, '2026년 임금체불 사업장 현장감독 대폭 확대

충남=이진영 기자 | 승인 2026.02.28 13:50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전경.ⓒ뉴스프리존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를 현장 감독에 나선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 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 모두 현장 감독할 예정이다.

현장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여 사업장 내에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 해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이진영 기자 jin2666@daum.net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현장감독 대폭 확대

홍주포커스 | 승인 2026.03.03 10:32

> 노동부 보령지청,임금체불없는 사회위한
>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 수립 및
> 연간 322개소 현장감독 예정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을 “모두” 현장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를 현장감독한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을 "모두" 현장감독할 예정이다.

현장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여 사업장 내에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어 해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주포커스

저작권자 © 홍주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노동부 보령지청,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 수립 및 연간 322개소 현장감독 예정

이승호 기자 | 승인 2026.02.27 18:10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를 현장감독한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을 "모두" 현장감독할 예정이다.

현장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여 사업장 내에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어 해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호 기자 ceobgnews@naver.com

저작권자 © 부여군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령타임즈

노동부 보령지청, '26년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이성필 기자 | 승인 2026.02.28 09:12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 수립 및 연간 322개소 현장감독 예정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를 현장감독한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을 "모두" 현장감독할 예정이다.

현장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여 사업장 내에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어 해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필 기자 sip6318@hanmail.net

저작권자 © 보령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올해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2026년 사업장 감독 계획 수립, 연간 322개소 집중 점검 예정
체불 신고 사업장 257개소 '전수조사'… 현장감독 대폭 확대

2026년 03월 09일 (월) 11:54:06 김종윤 기자 jjong8610@hanmail.net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이 올해 임금체불액 감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강도 현장 감독에 나선다.

보령지청은 지난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11월까지 관내 총 32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현장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임금체불 근절'이다. 보령지청은 전체 감독 물량의 약 80%에 달하는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특히 최근 1년 이내 2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되었거나, 체불을 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모두' 현장 감독을 실시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채택했다.

현장 감독 과정에서는 신고인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다른 노동자들의 잠재적 체불 여부까지 전수 확인하여 시정 조치할 방침이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명령에 불응할 경우, 즉시 범죄로 인지하여 사법 처리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난 속에서도 체불 청산 의지가 확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와 ‘대지급금 제도’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노동자들이 조속히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점석 보령지청장은 “올해 실시하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은 사업장 내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 해결하는 노동행정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임금체불 없는 청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보령신문(http://www.charm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 창닫기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2026년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 수립 및 연간 322개소 현장감독 예정

기사입력시간 : 2026/02/27 [19:10:00]
대천신문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를 현장감독한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 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을 '모두' 현장감독할 예정이다.

현장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해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 인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여 사업장 내에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어 해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령시장신문 모든 시민은 기자다
www.brcity.kr

노동부 보령지청, '26년에는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감독을 대폭 확대한다!

양창용 | 승인 2026.02.27 17:01 | 댓글 0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 수립 및 연간 322개소 현장감독 예정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지청장 이점석)은 27일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를 현장감독한다고 밝혔다.

보령지청은 올해 사업장 감독 계획의 최우선 목표를 '임금체불액 감축'에 두고, 감독 물량의 대부분인 총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 감독에 할당했다. 이를 위해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액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신고한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을 "모두" 현장감독할 예정이다.

현장감독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고한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의 체불까지 모두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는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청산할 의지가 높은 경우에는 이를 돕기 위해 사업주 융자지원 제도 및 대지급금 제도를 상세히 안내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점석 지청장은 "올해는 「체불 전수조사 감독」을 시행하여 사업장 내에 숨어있는 체불까지 모두 찾아내어 해결함으로써 노동행정의 커다란 전환점이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임금체불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보령시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양창용
다른기사 보기

공뉴스

충남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노동부 보령지청, 322곳 전면 현장감독

박웅현 기자 입력 2026.02.27 16:53 | 댓글 0

체불 신고 사업장 257곳 우선 배정
반복·다수 체불 사업장 ‘전수조사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이 2026년 사업장 감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11월까지 총 322개소에 대한 현장감독에 나선다.

감독의 핵심 목표는 ‘임금체불액 감축’으로, 체불 신고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지청은 전체 감독 물량 가운데 257개소를 임금체불 신고 사업장에 배정했다. 최근 1년 내 2회 이상 임금체불이 확정된 사업장과 체불 신고 노동자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은 모두 현장감독 대상에 포함한다.

감독 과정에서는 신고인 외에 미신고 노동자의 체불 여부까지 전수 확인해 시정 조치하고,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범죄인지 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이 있으나 체불 청산 의지가 높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융자지원 제도와 대지급금 제도를 안내해 체불 해소를 유도한다.

박웅현 기자
seoulca1919@naver.com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